

#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직 인력에 대한 고찰\*

## A Study of the Librarian Personnel for Public Libraries on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곽 철 완(Chul-Wan Kwak)\*\*  
김 선 이(Sun Yi Kim)\*\*\*  
김 수 정(Sujoung Kim)\*\*\*\*  
송 재 술(Jae Sul Song)\*\*\*\*\*  
윤 명 희(Myung Hee Yoon)\*\*\*\*\*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새로 공공도서관을 개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서직 공무원 정원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공도서관을 2개관 이상 개관한 전국의 15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사서직 정원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해당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시기에 조사대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였으나, 사서직 정원의 증가는 극히 미약하였다. 또한 복수직렬을 이용하여 행정직원 수를 증가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서직 정원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the change on librarian number of local governments on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the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and local government home pages of 15 local governments where opened more than two public libraries from 2008 to 2010.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15 government employees was increased but the number of librarian was slightly increased. Also,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positions was increased using plural series position system. It shows that the number of librarian can be increased under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키워드: 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공무원 정원, 기초자치단체  
Public Library, Librarian,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Government Employee Number, Local Government

- 
- \* 본 논문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6차 도서관정책포럼(2012. 05. 04)에서 발표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직 인력 현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kwak@kangnam.ac.kr) (제1저자)  
\*\*\* 정독도서관 사서(tjsdl71@sen.go.kr) (교신저자)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ksooj@mcst.go.kr) (공동저자)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팀장(soorie1@hanmail.net) (공동저자)  
\*\*\*\*\* 파주시청 도서관정책팀장(mhyoon87@korea.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2년 8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12년 9월 5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9월 17일

## 1. 서론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공공 영역 차원의 교육·문화서비스의 맞춤형 복합공간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도서관에서 지식정보, 평생교육,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핵심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기능 변화 추세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도서관 기능에 주목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인 수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601개관이었으나 2012년 3월 기준으로 784개관으로 증가하여 해마다 50여개관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신축되었다.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교육·문화서비스의 맞춤형 복합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들 전문인력은 도서관 건립계획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며, 도서관 개관 후에는 부서별 운영인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사서직 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사서직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기초자치의 공무원 정원 변화와 사서직 공무원 정원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 2. 연구의 배경

### 2.1 총액인건비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구의 설치 및 인력의 규모, 인건비배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및 보수 제도의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성과중심의 정부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여기서 총액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성 항목뿐만 아니라 기구설치,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의 설치나 정원의 증원 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의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제한하는 고위직을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자치 조직권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치 조직권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행정 수요에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천편일률적인 정원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총액인건비

〈표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제도

구 분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
중앙통제	법령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본청의 기구설치 기준</li> <li>•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li> <li>• 직급별·직종별 정원책정비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단위 기구(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5급 과단위 기구) 설치 기준</li> <li>• 부단체장의 정수 및 직급기준,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기준 존치</li> </ul>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정원을 초과하는 정원</li> <li>• 4급(시군구는 5급) 이상 정원</li> <li>• 직속기관 등 각종 기구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제도 폐지(자율결정)</li> <li>•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시도 3급, 시군구 4급~5급) 등의 직급책정시 사전 협의</li> </ul>
지방통제 (자율관리)	조직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진단체도 내실운영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진단기법 개발 및 운영 활성화</li> <li>• 문제점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li> </ul>
	의회 및 주민의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적 미비, 정보부족으로 실질적 통제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와 주민통제 강화: 조례규정사항 강화, 입법예고 강화, 재정영향분석 실시 및 공개</li> </ul>

※ 출처: 권오철 외, 2006.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에 대한 분석 평가』, 서울: 행정자치부.

예산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해야 하나, 행정수요의 급증이나 현안수요에 대응하여 인력증가가 필요한 경우 총액인건비의 초과가 가능하다. 산정한 총액인건비의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직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하혜수, 양덕순 2007).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액인건비제가 과도한 성과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공무원 구조 조정의 수단이나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초래하는 등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사서직의 정원 배치 및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2 공공도서관 수의 변화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2007년 601개관에 서 2008년 646개관, 2009년 700개관, 2010년 759개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증가한 공공도서관 158개관 중 150개관은 지자체에서 설립한 도서관이었으며, 그 중 66.7%인 100개관은 지자체 직영 도서관이었다(〈표 2〉 참조). 공공도서관 증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6개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서울 35개관, 인천 11개관 순으로 증가하였다(〈부록〉 참조).

〈표 2〉 연도별 공공도서관 수 변화

지역	설립주체	2007		2008		2009		2010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서울	사립		4		4		4		4
	교육청		22		22		22		22
	지자체	39	1	50	2	63	5	69	6
부산	사립		1		1		1		1
	교육청		12		12		13		14
	지자체		11		11		13		15

지역	설립 주체	2007		2008		2009		2010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대구	사립		2		3		3		5
	교육청		12		12		12		12
	지자체	1	2	1	3	1	4	4	5
인천	사립								
	교육청	2	6	2	6	2	6	2	6
	지자체	2	5	4	5	7	9	9	9
광주	사립								
	교육청		5		5		5		5
	지자체	1	7	1	10	1	10	1	10
대전	사립								
	교육청		2		2		2		2
	지자체		14		15		17		20
울산	사립								
	교육청		4		4		4		4
	지자체		4		5		5		7
경기	사립	1	5	1	5	1	5	1	5
	교육청		10		11		11		11
	지자체	11	90	13	100	17	109	19	127
강원	사립				1		1		1
	교육청		22		22		22		22
	지자체	5	16	5	17	5	19	5	19
충북	사립								
	교육청		15		15		15		15
	지자체	2	11	2	11	2	13	2	15
충남	사립								
	교육청		20		20		20		20
	지자체	1	25	1	26	1	29	1	30
전북	사립		1		1		1		1
	교육청		17		17		17		18
	지자체	1	19	1	23	1	24	1	25
전남	사립								
	교육청		20		21		21		21
	지자체	1	29	1	30	1	30	2	34
경북	사립		1		1		1		1
	교육청		28		28		27		28
	지자체	3	22	3	22	3	24	4	25
경남	사립								
	교육청		24		24		24		24
	지자체	2	19	2	20	2	24	2	27
제주	사립		1		1		0		0
	교육청		6		6		6		6
	지자체		14		15		15		15

지역	설립 주체	2007		2008		2009		2010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계	사립	1	15	1	17	1	16	1	18
	교육청	2	225	2	227	2	227	2	230
	지자체	69	289	84	315	104	350	119	389
합계		72	529	87	559	107	593	122	637
		601		646		700		759	

※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의 데이터를 근거로 재정리하였음.

〈표 3〉 연도별 공공도서관 증감 수

지역	설립 주체	2008		2009		2010		합계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서울	사립							
	교육청							
	지자체	11	1	13	3	6	1	35
부산	사립							
	교육청				1		1	2
	지자체				2		2	4
대구	사립		1				2	3
	교육청							
	지자체		1		1	3	1	6
인천	사립							
	교육청							
	지자체	2		3	4	2		11
광주	사립							
	교육청							
	지자체		3					3
대전	사립							
	교육청							
	지자체		1		2		3	6
울산	사립							
	교육청							
	지자체		1				2	3
경기	사립							
	교육청		1					1
	지자체	2	10	4	9	2	18	45
강원	사립		1					1
	교육청							
	지자체		1		2			3
충북	사립							
	교육청							
	지자체				2		2	4

지역	설립 주체	2008		2009		2010		합계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충남	사립							
	교육청							
	지자체		1		3		1	5
전북	사립							
	교육청						1	1
	지자체		4		1		1	6
전남	사립							
	교육청		1					1
	지자체		1			1	4	6
경북	사립							
	교육청				-1		1	
	지자체				2	1	1	4
경남	사립							
	교육청							
	지자체		1		4		3	8
제주	사립				-1			-1
	교육청							
	지자체		1					1
	사립		2		-1		2	3
	교육청		2				3	5
	지자체	15	26	20	35	15	39	150
합계		15	30	20	34	15	44	158
		45		54		59		

### 2.3 선행연구

공공도서관의 인력에 대한 연구는 크게 공공도서관 역할에서 사서의 중요성, 직원배치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연구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공도서관 역할에서 사서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로 이용남(1992)의 공공도서관 목적과 조직 구조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목적에 대해 직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사서직은 비사서직보다 기본 목적과 지원 목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윤(2010)은 오늘날 국내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위기 상황이라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이 사서직의 전문성 및 직업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유료화와 공공성 훼손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이브리드형 장서개발과 실물공간 및 디지털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덕숙(2010)은 공공도서관 전문직의 위기에서 총액인건비제 실시 이후 사서직의 전문성 쇠퇴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른 극복방안으로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사서의 전문

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과 사서의 주도적 활동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지봉(2010)은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 및 중장기 계획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공급하고 사서의 직업적 안정성 담보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직원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로 윤희운(2011)은 우리나라의 사서배치 인력과 비율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윤희운(2012)은 또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 개정안 연구에서 공공도서관 직원배치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570개 공립 공공도서관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최소인원 3명을 상근직원으로 배치하되 사서직원과 기타직원의 비율을 6:4로 하여 사서직원 2명과 기타직원 1인을 배치하고, 봉사대상 1만명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인구 1만명 당 사서 1명씩 늘려 배치하되 기타직원은 사서직원의 2/3 수준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란(2007)은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평생교육 전담 부서 미비와 전문가 부재, 행정지원 체제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정비와 함께 대안으로 사서의 평생교육 연수, 문헌정보학 교육 과정내 평생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연구로 김영석(2010)은 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에서 영국의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과정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서관 건립이 고려되어야 하며, 작은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영석(2011)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비교 연구에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간의 상관관계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에 미치는 영향 요소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보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단체장의 인식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도서관의 사서 인력 확충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사서직원 배치의 당위성을 드러내거나, 배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서인력 충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서직원의 필요성 문제가 아니라 총액인건비제를 악용하여 필요한 사서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상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서직원 확충 시 그동안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사서인력 확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 3. 조사대상 및 방법

#### 3.1 조사 대상 기초자치단체 선정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조사 대상 기초자치단체 선정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다음 해인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새로 공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신규 도서관 직원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 사립 공공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을 건립 하였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운영에 대한 위탁을 맡긴 도서관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 동안 공공도서관을 2개관 이상 개관하고 공공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 21곳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의 구로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21곳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은 신축하였으나 공무원 정원표에 사서직이 전혀 없는 두 곳(서울 구로구, 울산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경남 진주), 2008년 이후 도서관 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은 한 곳(경기 고양), 2010년과 2011년 자료만 있는 기초자치단체 두 곳(경기 오산, 전북 고창)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는 15곳이었다(〈표 4〉 참조).

〈표 4〉 2008년 이후 2개관 이상 도서관을 개관한 21개 기초자치단체

지역	기초자치단체	년도별 개관도서관 수			개관도서관 합계
		2008	2009	2010	
서울	구로구		1	1	2
	양천구		2		2
인천	남구		4		4
대전	동구		2	1	3
울산	북구	1		1	2
경기	고양시	3			3
	광주시			2	2
	남양주시	1	1	2	4
	부천시	1		1	2
	성남시	1		2	3
	시흥시		1	2	3
	안성시	1		1	2
	오산시	1		1	2
충북	용인시	1	1	1	3
충남	청주시		2	1	3
충남	천안시	1		1	2
전북	고창군	1		1	2
	전주시	1	1		2
전남	순천시			2	2
경남	김해시	1	1		2
	진주시		2		2

※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굵은색이 선정된 도서관임.



〈표 5〉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 출처에 따른 구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서울 양천구, 인천 남구, 대전 동구, 남양주시, 청주시, 전주시, 순천시	광주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천안시, 김해시

### 3.2 조사 내용

선정된 기초자치단체 15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원 변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였다(〈표 5〉 참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혹은 규칙을 조사하여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공무원 정원을 기관별 및 직렬·직급별로 조사하였다.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대상은 '일반직'으로, 여기에는 '행정직렬', '전문직렬', '복수직렬'로 구분된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반직을 단일직렬에서는 '사서직', '행정직', '기타직'으로 구분하고, 복수직렬에서는 '행정+사서직', '기타+사서직', '행정+기타직', '기타+기타직'으로 구분하였다.

## 4. 공공도서관 사서직 정원의 변화

### 4.1 공무원 정원의 변화

분석대상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2008년 17,508명에서 2009년 17,474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2010년에 17,695명으로 다시 증가한 후 2011년에 18,550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직렬별 전체 공무원 정원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단일직렬은 2008년 13,076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13,503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에 복수직렬은 2008년 4,432명에서 2011년 5,047명으로 크게 증가 추세로 전체 공무원 정원 증가의 대부분이 복수직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6〉 참조).

이 기간 동안 공공도서관 수는 2008년 52개관, 2009년 67개관, 2010년 83개관, 2011년 87개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사서직 정원의 증가는 극히 미비하였다. 2008년 사서직 정원은 178명에서 2011년 205명으로 단지 27명 증가하였다. 이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체 도서관이 35개관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사서직 정원은 극소수 증가하였다.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새로 개관한 도서관 1관당 사서직이 0.77명 배치되었다. 반면 복수직렬은 행정+사서직은 2008년 130명에서 2011년 195명으로 65명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사서직은 2008년에 7명에서 2011년 6명으로 1명 감소하였다(〈표 7〉 참조).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사서직 수와 전국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수를 비교하기 위해 당시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직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759개관이었다.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직 수는 3,175명으로 1관당 평균 4.18명이었다(〈표 8〉 참조). 위에서 조사한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1관당 사서직 수는 평균 2.43명으로 전국 평균

〈표 6〉 연도별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변화

연도별	공무원 총수	단일직렬				복수직렬				
		합계	사서직	행정직	기타직	합계	행정+사서	기타+사서	행정+기타	기타+기타
2008	17,508	13,076	178	6,979	5,919	4,432	130	7	3,164	1,131
2009	17,474	12,891	183	6,798	5,910	4,583	142	7	3,392	1,045
2010	17,695	12,970	202	6,838	5,930	4,728	167	6	3,508	1,046
2011	18,550	13,503	205	7,131	6,167	5,047	195	6	3,774	1,073

〈표 7〉 연도별 15개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수와 1관당 사서직 수

연도별	도서관수	사서직	행정+사서 (복수직렬)	기타+사서 (복수직렬)	1관당 사서직	1관당 행정+사서	1관당 기타+사서
2008	52	178	130	7	3.42	2.50	0.13
2009	67	183	142	7	2.73	2.12	0.10
2010	83	202	167	6	2.43	2.01	0.07
2011	87	205	195	6	2.36	2.24	0.07

〈표 8〉 2010년 전국 공공도서관 직원 현황

도서관수	직원수							1관당 사서수	1관당 직원수
	사서			행정직 및 기타			총계		
	남	여	계	남	여	계			
759	632	2,543	3,175	2,443	1,400	3,843	7,018	4.18	9.25

※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에 비교해 1.75명이 적다. 이 통계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새로 공공도서관을 신축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서직 인력 충원 문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공무원 정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공무원 총정원이 34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직에서 181명 감소하였지만, 사서직은 5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당시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5개 공공도서관이 새로 개관하였는데, 사서직 정원은 6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수치상으로 도서관 1관당 0.4명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행정+사서직과 행정+기타직 정원이 상당수 증가하여 행정직 정원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복수직렬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에 들어와서는 공무원 정원은 221명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855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사서직은 2010년에 19명이 증가하고 2011년에 3명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였다. 2010년에 도서관은 16개관이 새로 개관하였지만, 사서직 증원은 19명에 불과하여 도서관 1관당 사서 1.19명을 증원시켰다. 2011년에는 4개관 개관에 사서직 4명 증가하여 도서관 1관당 1명

〈표 9〉 연도별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의 전년도 대비 변화

연도	도서관수 (관)	공무원 총정원 (명)	단일직렬				복수직렬				
			합계	사서직	행정직	기타직	합계	행정+ 사서	기타+ 사서	행정+ 기타	기타+ 기타
2009	15	-34	-185	5	-181	-9	151	12	0	228	-86
2010	16	221	79	19	40	20	145	25	-1	116	1
2011	4	855	533	3	293	237	319	28	0	266	27

을 증원시켜 새로 개관한 도서관을 사서직 1명을 배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행정+사서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 25명, 2011년에는 28명이 증가하였다(〈표 9〉 참조).

#### 4.2 기초자치단체별 공무원 정원의 변화

##### 4.2.1 기초자치단체별 도서관 및 공무원 정원의 변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15개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수 및 공무원 정원을 비교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도서관을 새로 개관하였지만 사서직 정원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서울 양천구, 인천 남구, 대전 동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 도서관을 2개관 새로 개관하였지만, 사서직원은 전혀 충원하지 않았고 반면에 공무원 정원은 25명을 증가시켰다. 인천 남구의 경우 도서관을 4개관을 새로 개관하였지만 사서직은 한명도 증원하지 않고, 행정+사서직만 1명 증원하였다. 반면에 공무원 정원은 34명이 증원되었다. 대전 동구의 경우는 도서관은 3개관을 새로 개관하였지만, 사서직 정원은 2009년 1명 증원시켰다가 2011년 1명 감원시켰다. 이 기간 중 공무원 정원은 12명이 증원되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제시된 사서직원 배치 기준인 도서관 건물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명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둘째, 사서직 정원의 증가는 거의 없지만 대신 행정+사서직 정원이 증가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경기도 광주시는 도서관을 1개관 새로 개관하였지만 사서직은 1명도 증가시키지 않았으나 행정+사서직은 19명이 증가시켰다. 동시에 공무원 정원도 349명이 증가시켰다. 경기도 성남시는 도서관 2개관을 새로 개관하였지만 사서직은 1명도 증가시키지 않았고 행정+사서직은 5명이 증가시켰다. 반면에 공무원 정원은 16명이 증가시켰다. 충남 천안시는 도서관을 1개관 새로 개관하였지만 사서직은 오히려 1명이 감소시켰고 행정+사서직은 4명을 증가시켰다. 이 시기에 공무원 정원은 20명 증가시켰다(〈표 10〉 참조).

〈표 10〉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은 새로 건립되었으나 사서직 인력 충원은 미미하게 증가하였고 반면에 행정+사서직 정원을 증가시켰는데 복수직렬 즉, 행정+사서직 정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2012년 4월 기준 기초자치단체별 행정+사서직 중 도서관에 사서직 현원이 실제로 어떻게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내용이다.

〈표 10〉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은 새로 건립되었으나 사서직 인력 충원은 미미하게 증가하였고 반면에 행정+사서직 정원을 증가시켰는데 복수직렬 즉, 행정+사서직 정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2012년 4월 기준 기초자치단체별 행정+사서직 중 도서관에 사서직 현원이 실제로 어떻게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내용이다.

〈표 10〉 연도별 15개 기초자치단체 도서관과 공무원 정원 변화

구분	도서관			공무원 정원			사서직			복수직렬								
	2008	2009	2010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행정+사서			기타+사서			계*		
연도	2008	2009	2010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서울 양천구	0	2	0	0	0	25	0	0	0	0	0	0	0	0	0	2	0	1
인천 남구	0	4	0	1	-1	35	0	0	0	0	0	1	0	0	0	6	0	20
대전 동구	0	2	1	0	1	11	1	0	-1	0	0	-1	0	0	0	3	1	2
경기 광주시	0	0	2	-1	-76	426	0	0	0	4	3	12	0	0	0	-10	-35	93
경기 남양주	1	1	2	6	66	58	0	5	0	1	1	2	0	0	1	22	6	51
경기 부천시	1	0	1	-17	38	50	1	3	3	0	1	2	0	0	0	17	33	3
경기 성남시	1	0	2	4	12	0	0	0	0	2	3	0	0	0	0	52	3	1
경기 시흥시	0	1	2	-23	10	14	0	0	0	-1	5	0	0	-1	0	49	28	4
경기 안성시	1	0	1	1	16	15	0	1	0	4	3	1	0	0	0	17	19	8
경기 용인시	1	1	1	-1	54	75	3	3	0	0	5	1	0	0	-1	36	29	14
충북 청주시	0	2	1	-8	6	6	0	1	1	2	1	0	0	0	0	-1	3	-2
충남 천안시	1	0	1	-1	0	21	0	0	-1	1	0	3	0	0	0	-56	3	34
전북 전주시	1	1	0	0	23	74	0	0	0	0	1	5	0	0	0	-4	51	23
전남 순천시	0	0	2	0	0	-3	0	0	0	-1	0	1	0	0	0	14	0	60
경남 김해시	1	1	0	5	72	48	0	6	1	0	2	1	0	0	0	4	4	7
합계	8	15	16	-34	221	855	5	19	3	12	25	28	0	-1	0	151	145	319

\* 복수직렬 중 행정+기타, 기타+기타를 포함한 복수직렬 합계임.

#### 4.2.2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는 2008년 공공도서관이 1개관이었으나, 2010년에 3개관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 도서관 2개관이 증가하였으나 단일직렬인 사서직 증가는 없었고, 복수직렬인 행정+사서직에 2008년과 대비하여 2009년에는 4명이

증가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11〉 참조). 행정+사서직에서 실제 행정직과 사서직 현원을 구분해보면 2012년 4월 기준으로 27명 중에 사서직은 9명에 불과하고 행정직 14명, 세무직 2명, 전산직 1명이다. 즉 행정+사서직에서 현재 사서직 비율은 33%에 불과하며 행

〈표 11〉 경기도 광주시 도서관 수와 공무원 정원 변화

연도별	도서관수	공무원 총수	단일직렬				복수직렬				
			합계	사서직	행정직	기타직	합계	행정+ 사서	기타+ 사서	행정+ 기타	기타+ 기타
2008	1	847	432	0	135	297	415	10	0	314	91
2009	1	846	441	0	127	314	405	14	0	329	62
2010	3	770	400	0	126	274	370	17	0	295	58
2011	3	1,196	733	0	266	467	463	29	0	363	71

〈표 12〉 경기도 광주시 도서관 직원 현황

	사서직	행정+사서직	기타+사서직	소계
5급	-	1(행정1)	-	1
6급	-	3(행정3)	8(행정5, 세무2, 전산1)	11
7급	-	6(행정5, 사서1)	-	6
8급	-	4(사서4)	-	4
9급	-	4(사서4)	-	4
합계	-	18(행정9, 사서9)	8(행정5, 세무2, 전산1)	27

정직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시에서 공공도서관에 단일직렬인 사서직 대신에 복수직렬을 배치한 이유가 사서직은 새로 임용하지만, 5~7급은 도서관 전문직인 사서직 배치 대신에 행정직을 배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광주시에서 평균적으로 도서관 1개관 당 사서직 수는 3명이었으며, 행정직 수는 4.7명이었다(〈표 12〉 참조).

#### 4.2.3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2008년에 공공도서관이 1개관이 증가하여 5개관이 되었고 2010년에 1개관이 증가하여 현재 6개관이다. 2010년 도서관 1개관이 증가하였으나 사서직 정원의 변화는 없었고 2011년에는 오히려 1명이 감소하였다(〈표 13〉 참조). 행정+사서직 정원은 2008년 10명에서 2009년 1명 증가하였고, 2011년 3명 증가하여 14명이 되었다. 행정+사서직에서 실제 행정직과 사서직

현원을 구분해보면 2012년 4월 기준으로 14명의 인력 중에 사서직은 8명이며, 행정직은 6명이다. 행정+사서직에서 사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57%를 차지하였다. 도서관 6개관을 기준으로 도서관 1개관 당 사서직 수는 평균 3.3명이었으며, 행정직 수는 2명이었다(〈표 14〉 참조).

#### 4.2.4 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2008년에 공공도서관이 3개관에서 2011년에는 현재 5개관으로 2009년과 2011년에 1개관씩 증가하였다. 2009년 도서관 1개관이 증가하였으나 사서직 정원의 변화는 없었고 2010년에 사서직 6명, 행정+사서직 2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사서직 1명이 증가하고 행정+사서직도 1명이 증가하였다(〈표 15〉 참조). 행정+사서직에서 실제 행정직과 사서직 현원을 구분해보면 2012년 4월 기준으로 10명의 인력 중 사서직은 2명

〈표 13〉 충남 천안시 도서관 수와 공무원 정원 변화

충남 천안시 연도별	도서관수	공무원 총수	단일직렬				복수직렬				
			합계	사서직	행정직	기타직	합계	행정+ 사서	기타+ 사서	행정+ 기타	기타+ 기타
2008	5	1,418	799	13	472	314	619	10	0	434	175
2009	5	1,417	854	13	465	376	563	11	0	439	113
2010	6	1,417	851	13	464	374	566	11	0	441	114
2011	6	1,438	838	12	467	359	600	14	0	464	122

〈표 14〉 충남 천안 도서관 직원 현황

	사서직	행정+사서직	기타+사서직	소계
5급	-	1(행정1)	-	1
6급	3	3(행정1, 사서2)	-	6
7급	4	4(행정1, 사서3)	-	8
8급	3	4(행정1, 사서3)	-	7
9급	2	2(행정2)	-	4
합계	12	14(행정6, 사서8)	-	26

〈표 15〉 경남 김해시 도서관 수와 공무원 정원 변화

경남 김해시 연도별	도서관수	공무원 총수	단일직렬				복수직렬				
			합계	사서직	행정직	기타직	합계	행정+ 사서	기타+ 사서	행정+ 기타	기타+ 기타
2008	3	1,109	941	11	387	543	168	6		127	35
2009	4	1,114	942	11	389	542	172	6		131	35
2010	4	1,186	1,010	17	413	580	176	8		130	38
2011	5	1,234	1,051	18	439	594	183	9		134	40

〈표 16〉 경남 김해 도서관 직원 현황

	사서직	행정+사서직	기타+사서직	소계
5급	-	3(행정3)	-	3
6급	-	7(행정5, 사서2)	-	7
7급	5	-	-	5
8급	5	-	-	5
9급	9	-	-	9
합계	19	10(행정8, 사서2)	-	29

이며, 행정직은 8명이다. 복수직렬에서 사서직 비율이 20%로 상당히 낮았으며 동시에 복수직렬은 5급과 6급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도서관 5개관을 기준으로 도서관 1개관 당 사서직 수는 평균 4.2명이었으며, 행정직 수는 1.6명이었다(〈표 16〉 참조).

### 4.3 총액인건비제와 사서직 정원 변화

지방직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사서직원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새로 도서관을 개관하면 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서직원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의 주장대로 총액인건비제로 사서직원을 증원할 수 없다면 전체 공무원 정원도 증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 조사대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전년도 대비 221명이 늘어났고, 2011년에 855명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하지만 사서직원은 2010년에 전년도 대비 19명, 2011년에 전년도 대비 3명을 증원하였다. 2009년에 도서관이 새로 15개관, 2010년 16개관이 새로 개관하여 새로운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은 각각 221명, 855명을 증원시키면서 사서직원을 각각 19명, 3명밖에 증원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총액인건비제가 사서직원의 증원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분야의 공무원은 증원시키면서 사서직원의 증원을 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 양천구, 인천 남구 등에서는 도서관을 새로 개관하였으나 사서직을 한명도 충원하지 않았다.

이들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던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지방직 공무원의 복수직렬 정원이 크게 증가되었다. 행정+사서, 기타+사서, 행정+기타의 복수직렬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였는데, 행정+사서와 기타+사서직 정원이 증원하였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고위직(5급~6급)에 복수직렬을 많이 배치하였는데, 이곳에 사서직

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을 배치하고 있었다. 즉, 많은 복수직렬에 정원을 확보하여 행정직 인력을 확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지방직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에서 사서직 공무원의 정원은 의도적으로 증가를 억제되고 있었고, 편법으로 복수직렬을 이용하여 공공도서관의 고위직에 행정직을 배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사서직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사서직 정원의 변화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총액인건비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였지만 공공도서관을 새로 개관하면서 사서직 정원은 극소수 증가에 그쳤다. 이 결과는 사서직 정원의 증원을 요청하면,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공무원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면서 복수직렬 정원 수를 2010년에는 전체 정원 증가의 65.6%, 2011년에는 37.3%를 늘렸는데, 행정+사서 직렬의 경우를 보면, 이 자리의 상당 부분이 행정직 현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사서직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여도 사서직 정원은 증가되지 않았으며, 복수직렬은 행정+사서직 정원을 증가시켰지만 실제로는 행정직을 그 자리에 배치하였다.

이 결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사서직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다음 연구과제로 새로 공공도서관을 개관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서직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

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교육 및 문화서비스의 맞춤형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만하는 건물로 생각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가 기초자치단체장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인지 혹은 지역주민의 요구인지 분석이 필요하여, 사서직 증원에 소극적인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 인력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김영석. 2010. 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381-403.
- 김영석. 2011.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311-330.
- 김지봉. 2010. 흔들리는 직업적 안정성 - 위기의 공공도서관 전문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2010.6: 115-132.
- 우덕숙. 2010. 약해지는 업무의 전문성 - 공공도서관 전문직의 위기: 퇴색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그 대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2010.6: 145-156.
- 윤희운. 2011. 국내외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73-95.
- 윤희운. 2012.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 개정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55-76.
- 윤희운. 2010. 국내 공공도서관 위기의 실체와 해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5-24.
- 이애란. 2007.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조직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139-160.
- 이용남. 1992. 공공도서관 목적의 구조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22: 29-82.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각 자치단체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online]. [cited 2012.7.30]. <<http://www.elis.go.kr/>>.
- 하혜수, 양덕순. 2007. 공무원 정원관리제도의 경로의존성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2): 139.
-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online]. [cited 2012.7.30]. <[http://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policy&menu=policy\\_03\\_03](http://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policy&menu=policy_03_03)>.



〈부록〉 2008년~2010년 개관 도서관 명단

지역	설립주체	운영방식	기초 자치단체	개관년도	도서관명	
서울* (35)	지자체 (시·도) (35)	직영 (5)	구로구	2009	구로주민전용도서관	
				2010	하늘도서관	
			양천구	2009	개울작은도서관	
					목마작은도서관	
			동작구	2008	동작어린이도서관	
		위탁 (30)	강남구	2009	강남 역삼 푸른솔 도서관	
					강동구	2008
			강동구	2009	강동구립강일도서관	
					2010	강동구립암사도서관
					강북구	2010
			수유문화정보센터			
			강서구	2008	강서푸른들청소년도서관	
					2009	강서꿈꾸는어린이도서관
			관악구	2009	은천동작은도서관	
			광진구	2008	지양제4동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구로구	2010	개봉도서관	
					개봉어린이도서관	
			금천구	2008	금나래아트홀도서관	
			도봉구	2008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2009	학마을다사랑센터
			동작구	2009	동작상도국주도서관	
			서대문구	2010	남가좌 새롭 어린이도서관	
			성동구	2008	성동구립무지개도서관	
			성북구	2009	해오름어린이도서관	
		송파구	2009	소나무언덕2호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송파어린이도서관		
		영등포구	2008	문래정보문화도서관		
				2009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용산구	2009	청파도서관				
은평구	2008	구립중산정보도서관				
		2009	응암정보도서관			
중구	2008	서울중구구립도서관				
부산 (6)	교육청 (2)	직영 (2)	부산진구	2009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분관부산영어도서관	
			해운대구	2010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지자체 (시·도) (4)	직영 (4)	북구	2010	화명도서관	
			사하구	2010	다대도서관	
			수영구	2009	수영구도서관 망미분관	
			영도구	2009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지역	설립주체	운영방식	기초 자치단체	개관년도	도서관명	
대구 (9)	사립 (3)	직영 (3)	달서구	2010	푸른초장공공도서관	
			북구	2008	더불어 숲	
				2010	해오름 도서관	
	지자체 (시·도) (6)	직영 (3)	달서구	2008	달서구립성서도서관	
			북구	2009	구수산도서관	
			서구	2010	서구어린이도서관	
		위탁 (3)	수성구	2010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수성구립 책숲길도서관	
					수성구립 물망이도서관	
인천 (11)	지자체 (시·도) (11)	직영 (4)	남구	2009	독정골어린이도서관	
					관교어린이도서관	
					쑥골어린이도서관	
					송의어린이도서관	
		위탁 (7)	계양구	2008	효성도서관	
					2009	서운도서관
					2010	동양도서관
			남구	2009	인천광역시립수봉도서관	
					2008	석남어린이도서관
			서구	2010	심곡어린이도서관	
					2009	인천광역시립영종도서관
광주 (3)	지자체 (시·도) (3)	직영 (3)	광산구	2008	운남어린이도서관	
			동구		계림꿈나무도서관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대전 (6)	지자체 (시·도) (6)	직영 (6)	대덕구	2010	송촌평생학습도서관	
			동구	2009	홍도도서관	
					자양도서관	
					2010	무지개도서관
			서구	2008	서구어린이도서관	
유성구	2010	노은도서관				
울산 (3)	지자체 (시·도) (3)	직영 (3)	남구	2010	울산남구도산도서관	
			북구	2008	울산북구중앙도서관	
				2010	염포양정도서관	
강원도 (4)	사립 (1)	직영 (1)	춘천시	2008	담작은도서관	
	지자체 (시·도) (3)	직영 (3)	강릉시	2009	모루도서관	
			고성군	2008	토성공공도서관	
			인제군	2009	원통도서관	
경기도 (46)	교육청 (1)	직영 (1)	수원시 권선구	2008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지자체 (시·도) (45)	직영 (37)	가평군	2009	설악도서관	
			고양시	2008	고양시립풍동도서관	
					고양시립한뫼도서관	
					고양시립대화도서관	
광명시	2009	소하어린이도서관				

지역	설립주체	운영방식	기초 자치단체	개관년도	도서관명	
			광주시	2010	오포도서관	
					곤지암도서관(구 실촌도서관)	
			구리시	2010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군포시	2008	군포시 중앙도서관	
			남양주시	2008	남양주시별내도서관	
				2009	남양주시외부도서관	
				2010	오남도서관 남양주시평내도서관	
			부천시	2008	한울빛도서관	
				2010	부천시립꿈여울도서관	
			성남시	2008	성남시구미도서관	
				2010	판교도서관 성남시중원어린이도서관	
			시흥시	2009	정왕어린이도서관	
				2010	시흥시능곡도서관 시흥시군자도서관	
			안산시	2010	안산시부곡도서관	
			안성시	2008	안성시립중앙도서관	
				2010	안성시립공도도서관	
			안양시	2010	안양시립비산도서관	
			양주시	2009	양주시남면도서관	
			양평군	2009	양평양서친환경도서관	
			오산시	2008	오산시중앙도서관	
				2010	양산도서관	
			용인시	2008	용인시죽전도서관	
				2009	용인시 동백도서관	
				2010	기흥도서관	
			의왕시	2010	의왕시글로벌도서관	
			이천시	2009	이천시 어린이도서관	
			파주시	2010	적성도서관	
			포천시	2010	포천시립소흘도서관	
			하남시	2009	하남시 나물도서관	
			위탁 (8)	김포시	2009	김포시통진도서관
				부천시	2008	해밀도서관
				안산시	2009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어린이도서관
파주시	2008	교하도서관				
	2010	조리도서관				
화성시	2009	봉담도서관				
	2010	두빛나래 어린이도서관 화성시립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				
충북 (4)	지자체 (시·도) (4)	직영 (4)		청원군	2010	목령도서관
			청주시	2009	청주시립서부도서관	
					청주신울봉어린이도서관	
				2010	청주시립상당도서관	

지역	설립주체	운영방식	기초 자치단체	개관년도	도서관명
충남 (5)	지자체 (시·도)	직영	계룡시	2009	엄사도서관
			금산군	2009	추부도서관
			당진군	2009	당진군립중앙도서관
			천안시	2008	천안시중앙도서관도솔분관
				2010	천안시중앙도서관두정분관
전북 (7)	교육청 (1)	직영 (1)	김제시	2010	김제교육문화회관
	지자체 (시·도) (6)	직영 (6)	고창군	2008	고창군립도서관
				2010	고창군립성호도서관
			남원시	2008	남원시립도서관
			전주시	2008	전주시립서신도서관
				2009	전북도청도서관
정읍시	2008	정읍기적의도서관			
전남 (7)	교육청 (1)	직영 (1)	여수시	2008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지자체 (시·도) (6)	직영 (5)	고흥군	2010	고흥군립중앙도서관
			순천시	2010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
					해룡농어촌도서관
			장흥군	2010	정남진도서관
		함평군	2008	함평나비곤충도서관	
위탁 (1)	목포시	2010	목포어린이도서관		
경북** (6)	교육청 (1)	직영 (1)	포항시	2010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지자체 (시·도) (5)	직영 (4)	문경시	2009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청송군	2009	진보공공도서관
			칠곡군	2010	칠곡군립도서관
			포항시 남구	2009	포항시립동해석곡도서관
	위탁 (1)	울진군	2010	울진남부도서관	
경남 (8)	지자체 (시·도) (8)	직영 (8)	거제시	2010	거제시립옥포도서관
			김해시	2008	김해시립화정글샘도서관
				2009	김해시립진영한빛도서관
			남해군	2009	화전도서관
			진주시	2009	비봉어린이도서관
					도동어린이도서관
			창원시	2010	성산도서관(구 성주도서관)
통영시	2010	통영시립도서관			
제주도 (1)	지자체 (시·도) (1)	직영 (1)	제주시	2008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 2008년 서울 서초어린이책마을도서관 폐관

\*\* 2009년 경상북도립금릉공공도서관 폐관, 군위군립도서관은 군위공공도서관과 통합